

동사 형판과 동사토

최규수 · 서민정*

< 목 차 >

- I. 머리말
- II. 언어 기호의 분류와 원리
 - 1. 기호의 분류
 - 2. 원리와 어휘 규칙
- III. 동사 형판과 동사토의 기능
 - 1. 동사의 구조와 특성
 - 2. 동사 형판과 동사토의 기능
 - 3. 동사의 정보와 문장
- IV. 맺음말

<Abstract>

The Verb Template and The Verb Inflectional Affixes

Choi Kyu-Soo, Seo Min-Jeong

This paper is a preceding work for reflecting morphologic and syntactic properties of Korean inflectional affixes. I introduce the method and principle of HPSG for its discussion.

First, I add a new *morphological unit* to the sub-classification of sign in P&S(1984) and establish the schema for the *morphological unit*. And I explain that the Korean inflectional affixes unite the Korean verb stem and other inflectional affixes as a agglutination and linguistic information of Korean inflectional affixes unite the linguistic information of Korean verb

* 부산대학교 교수

stem and other inflectional affixes as the principle of 'unification'.

I. 머리말

1. 우리말은 통어적 기능을 가진 ‘동사토’를 교착적 방식으로 실현시켜 문법적 의미를 표현한다. 그런데 이 ‘동사토’는 독립된 통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태론적 중심어인 동사 어간에 의존하고 있어, 이론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설명되어 왔다.

이 연구는 우리말 문법 체계의 원리와 도식으로 설명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언어 공학적으로도 쉽게 응용될 수 있는 문법 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 된다. 그러한 목적에 따라 ‘동사토’가 실현되는 위치와 순서를 바탕으로 다른 성분과의 결합 관계나 제약을 검토하여 문법에 반영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HPSG(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의 언어 정보 처리 방법을 도입한다.

2. 우리말 동사토는 동사 어간과 결합하여 어절을 형성하는 형태론적인 특성이 있는가 하면, 독립적인 문법 기능을 가지고 구와 결합한다는 통어적인 특성도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문법에 따라서 통어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형태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어떤 측면에서 분석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동사토의 양상들은 문법 체계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동사토는 어간, 그리고 다른 동사토와 형태론적 구조를 이루는데 이때, 엄격한 순서가 있다. (1ㄴ)이 비문이 되는 것은 순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1)ㄱ. 할머니께서 손을 잡-으시-었-겠-다.

ㄴ. *할머니께서 손을 잡-었-으시-겠-다.

둘째, 동사토는 동사에 선행하는 다른 요소들과 통어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1ㄱ)의 ‘-으시-, -었-, -겠-, -다’는 형태론적으로는 어간 ‘잡-’과 결합하고 있

지만, 통어적으로는 ‘할머니께서 손을 잡-’과 결합하고 있다.

그리고 동사토는 그것이 나타남과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대립적인 기능을 나타낸다. 그래서 각 동사토는 그것에 대응하는 각각의 $\emptyset$ 형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과거의 ‘-었-’의 경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과거’를 나타낸다.

(2) ㄱ. 어제 먹었겠다.

ㄴ. *어제 먹 $\emptyset$ 겠다.

마지막으로 동사토는 후행하는 요소와도 어떤 제약관계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3)에서 ‘않다’와 ‘먹다’가 앞에 나오는 어떤 동사와 결합할 때, ‘않다’와 ‘먹다’가 결합하는 동사는 각각 ‘-지’와 ‘-어’ 형식이어야 한다.

(3) 영이가 밥을 (먹 $\underline{\text{지}}$ 않았다, *먹 $\underline{\text{어}}$ 않았다, *먹 $\underline{\text{지}}$ 보았다, 먹 $\underline{\text{어}}$ 보았다).

지금까지 살핀 동사토의 결합 관계를 정리하면 (4)와 같다.

(4)



(4)에서 I은 동사토의 형태론적 관계를, II는 동사토와 선행 요소와의 통어적 관계를, III은 동사토와 후행 요소와의 통어적 관계를 나타낸다. 동사토의 통어론과 형태론에서는 이러한 결합관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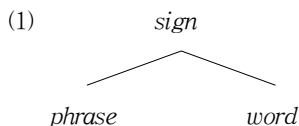
3. 우리말 동사토와 동사 어간의 결합에 대해서, (i) 중심어 이동과 같은 통어적 기제로 설명한 논의도 있고, (ii) 형관으로 설명한 논의도 있고, (iii) 동사의 굴절로 설명한 논의도 있다. (i)의 논의는 동사토를 통어론의 단위로 설정하여 설명한 것이며, (ii)와 (iii)의 논의는 동사토를 형태론 안에서 설명한 것이다.

이 글은 먼저 (4)의 I의 문제에 대해서 전통적인 형관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것은 토의 고정된 위치와 엄격한 순서와 같은 형태론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II, III과 관련된 통어적 특성을 형태론에 반영하여 기술하기 위해 HPSG의 정보 처리 방법을 도입하는데, 우리말의 특성에 따라 언어 기호의 하위 유형과 도식과 어휘 규칙을 추가할 것이다.

II. 언어 기호의 분류와 원리

1. 기호의 분류

HPSG의 기호(sign)의 하위 유형(P&S, 1987:43)은 (1)과 같다.¹⁾



(2)에서 *구(phrase)*는 ‘표지가 예쁜’이고, *어절(word)*은 ‘예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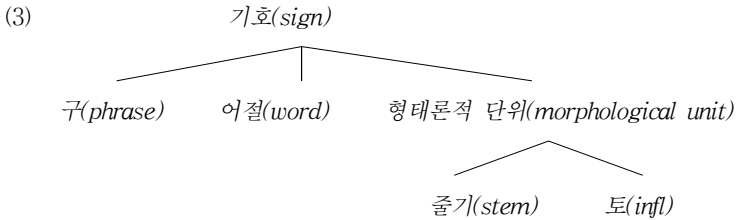
(2) 영이가 [표지가 예쁜 책을] 샀다.

HPSG의 설명에서는 *어절*이 통어론의 최소 단위이다. 그래서 ‘예쁜, 예뻐다, 예쁘게,...’와 같은 것들이 ‘예쁘다’라는 동사의 굴절형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1) 언어 기호의 하위 유형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교착적 방식으로 실현되더라도 유형이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다면 이러한 설명이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말은 통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태론적 구조로 이루어진 언어 형식인 ‘토’가 종류도 많고 결합형도 다양해서 굴절형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유형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해진다. 그래서 우리말은 통어 기능을 가진 ‘동사토’와 같은 언어 형식이 어절의 한 성분이 되기 때문에 ‘통어론적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어절’의 내부 구조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서 이 글에서는 *sign*의 하위 유형의 하나로 ‘통어론적 기능을 가진 형태론적 단위’(줄여서 형태론적 단위, ‘*morphological unit*’)를 설정한다. 이것은 문법 부문을 ‘형태론’과 ‘통어론’으로 나누고 ‘형태론’은 다시 ‘파생 형태론’과 ‘굴절 형태론’으로 나누는 전통적인 분류의 설명과 거의 같다. 그러한 분류에서 ‘굴절 형태론’의 대상이 이 글의 ‘형태론적 단위’와 일치한다. 그리고 ‘형태론적 단위’는 ‘어절’ 내부에서의 역할에 따라 ‘줄기’와 ‘토’로 나눈다. 정리하면 (1)은 (3)과 같이 수정된다.



(3)에서 어절이 구를 이루는 것은 어절 사이의 통어적 구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HPSG의 논의에 따라 통어적 원리와 도식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형태론적 단위가 어절을 이루는 것은 형태론적 구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형태론의 원리나 도식이 필요하다.

2. 원리와 어휘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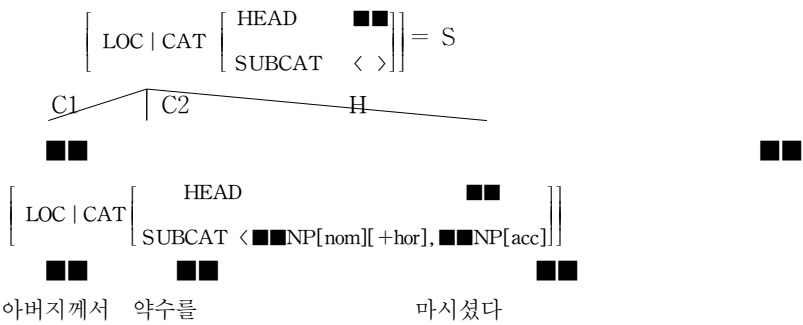
1) 구 구성(통어적 구조)을 위한 원리

먼저 ‘하위범주화 원리’를 보자. (4)에서 중심어는 ‘마시셨다’이다. 그리고 보어 딸은 ‘아버지께서’와 ‘약수를’이다. 그래서 (4)는 중심어(H), 임자말(C1), 목적어(C2)의 세 딸을 가진다.

(4) 아버지께서 약수를 마시셨다.

한국어의 구조를 비형상적이라고 본다면, (4)의 구조를 대강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P&S(1987)의 직접관할도식3에 대응한다.²⁾

(5)



(5)에서 ■■과 ■■에 의해 지시된 보어 딸들은 그것의 SYNSEM 값을 가지는데, 그것은 중심어 딸의 SUBCAT 목록의 하나와 표상적으로 동일하다. 이것은 하위범주화 원리를 예증한다. 그래서 HPSG의 하위범주화 원리는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P&S(1987)의 원리는

(6) 하위범주화 원리

중심어 구(곧, 그 DTRS 값이 부류 head-struct인 구 기호)에서, 중심어 딸의 SUBCAT 값은 구의 SUBCAT 목록과 보어 딸들의 SYNSEM 값의 목록의 연쇄이다.

한편 (5)와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은 S의 ■■■으로 지시된 HEAD 값이 ‘마시셨다’의 HEAD의 값과 표상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심어 자질 원리를 예증하는데, HPSG의 중심어 자질원리를 보이면 (7)과 같다.

(7) 중심어 자질 원리(HFP)

모든 중심어 구의 HEAD 값은 중심어 딸의 중심어 값과 구조 공유된다.

HFP의 효과는, 중심어 구들이 실제로 그것들의 딸들의 ‘투사’라는 것을 보증한다. 그리고 전체 구의 HEAD 값은 중심어 딸의 HEAD 값과 표상적으로 동일하다.

HPSG는 엄격하게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언어 정보에 의존하는데, 그러한 언어 정보는 하위범주화 원리와 HFP와 같은 일반적 원리에 따라, 구 표현들의 본질적인 문법적 속성들을 결정한다. 그런데 HPSG에서 복합적인 언어 정보를 가진 어휘 항목과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잉여성은 다중적 상속 계층과 어휘 (잉여) 규칙들에 따라 간결하고 원리화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2) 어절의 구성(형태론적 구조)을 위한 도식과 규칙

형태론적 단위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루는 ‘형태적 구조’는 어절이 결합하여 구를 이루는 ‘중심어 구조’와는 다르다. 한국어의 형태적 구조는, 통어적 구조와는 달리, 엄격한 순서가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다.

예들 들어 우리말의 동사라면 동사토가 실현되어 어절을 이루는데, 이들 동사토들은 엄격한 순서를 지켜야 하며, 동사토들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형태론적 단위가 어절이 되기 위한 어휘 규칙과 도식이 필요하다.

먼저 동사에 동사토가 결합하여 상위의 언어 형식인 어절이 되는 것은 (8)과 같은 동사의 어휘 규칙에 의한 것이다. (8)의 어휘 규칙에서 각 자질은 한 번씩만 나타날 수 있다.

(8) $word [CAT | HEAD_{stem} [POS \ V]]$

$\Rightarrow word$	CAT	HEAD	$stem [POS$	$V]$	]]]]
			$infl [HOR$	$+V-]$	
			$infl [PAST$	$+V-]$	
			$infl GUESS$	$+V-]$	
			$infl [ENDING$	$종결형 \vee 연결형 \vee 명사형 \vee 관형사형]$	

그리고 동사 내부의 형태론적 단위들은 위치 정보를 가지고 엄격한 순서를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형판을 도입한다. ‘형판’은 ‘형태론적 단위’들이 결합되기 위한 기초적인 결합 정보를 나타낸다. 줄기는 형판에서 ‘0’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토는 형판에서 ‘0’이 아닌 다른 위치의 정보를 각각 가진다.

그리고 형판이 정한 위치와 동사의 어휘 규칙에 따라 동사토가 결합되는데 그 때는 ‘정보의 통합’의 의해 결합 여부가 정해진다. 즉 형태론적 단위들의 상호 제약에 의해서 결합의 여부가 결정되는데, 값이 상치되면 통합할 수 없다. 이러한 형태론의 통합에 관한 것을 규약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형태론의 통합 규약

줄기($stem$)과 토($infl$)는 형판에서 그 위치가 정해지고, 그 위치에서 다른 형태론적 단위와 정보의 충돌이 없으면 통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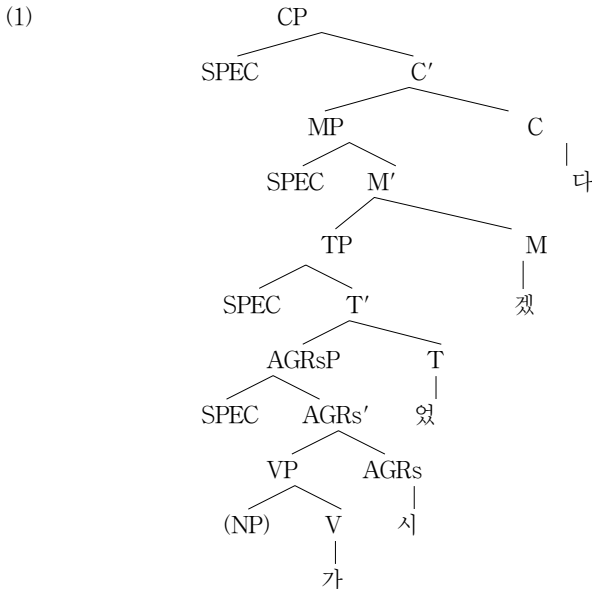
(9)와 같은 도식에 따라 관형사형 ‘-는’과 ‘-었-’이 결합할 수 없는 것이 설명되는데, ‘는’이 ‘[PAST -]’이고, ‘었’은 ‘[PAST +]’로 자질의 값이 상치되기 때문이다.

III. 동사 형판과 동사토의 기능

1. 동사의 구조와 특성

1) ‘가시었겠다’를 예를 들어 동사를 분석하는 몇 가지 경우를 검토해 보자.

먼저 ‘가-, -시-, -었-, -겠-, -다’ 각각을 통어적 단위로 인정하여 통어 범주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유동석(1995) 등과 같은 변형 문법의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가-, -시-, -었-, -겠-, -다’ 각각은 중심어가 되어 다른 성분을 하위범주화하여 최대 투사 범주가 된다. 그리고 이들 범주들은 어순을 지키는데 그러한 것은 중심어 이동을 통한 결과라고 본다.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의의는 통어 기능을 가진 동사토를 통어적 단위로 분석하면서, 문장의 중심으로 분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사토가 통어 기능을 가졌다

고 해서, 반드시 통어적 단위로 분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동사토의 통어적 특성을 형태론에서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처리하면, 동사 어간과 동사토들을 결합하는 중심어 이동과 같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2) 다음으로는 ‘가시었겠다’를 동사 ‘가다’의 굴절형의 하나로 분석하는 것이다.

변형 문법 이전의 문법에서는, 최현배(1937), 허웅(1983)의 절충적 체계나 정렬모(1946), 이승녕(1957) 등의 종합적 체계는 모두 이렇게 분석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동사토의 통어 기능을 문장 구조의 기술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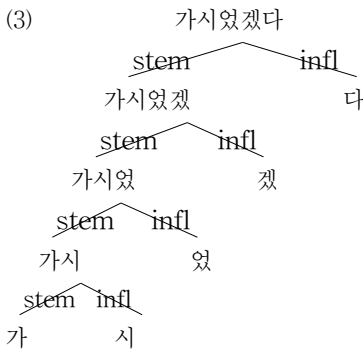
대부분의 HPSG 연구도 이렇게 분석하였다. 먼저 장석진(1995:87)의 경우를 보자. 장석진(1995)에서는 ‘동사+동사토’를 더 이상 분석하지 않고 동사의 활용형에 따라 VFORM의 하위 부류를 (2)와 같이 설정했다.

(2) VFORM	{BSE, PREF, FIN}	(동사활용형)
FIN	{SE, NOMZ, ADNZ, ADVZ, CONJ, COMP}	(어말어미)
SE	<SL, ST>	(종결어미)
SL	{FRM, POL, BLT, FML, PLN, ITM}	(문계)
ST	{DCL, INT, IMP, PRP}	(문형)
NOMZ	{ㄴ, 기}	(명사화형)
ADNZ	{는, 은, ㄹ, 던}	(관형화형)
ADVZ	{{(으)면, (으)니까, 지만, ...}	(부사화형)
CONJ	{고, 데, (으)며, 나, ...}	(등위접속형)
PREF	<HON, TNS, MD>	(선어말어미)
HON	{+, -}	(공대어미)
TNS	{PRS, PST, PST2}	(시제어미)
MD	{INT, RET}	(서법어미)
BSE	{R, T/L, P/W, S/∅, LL, ...}	(어간)

동사와 동사토의 결합에 대해 (2)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동사를 중심어로

분석하면서 그 분석 결과가 단순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2)를 통해서도 ‘먹었음, 가셨겠더라’와 같은 우리말 동사토들의 통어적·의미적 기능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ㅁ, 기’, ‘느, 은’ 등은 다른 동사토와는 문법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이를 드러내기 어렵다.

김종복(1998)에서는 HPSG의 ‘부류’ 개념에 따라 동사와 동사토를 하위 분류하고 유형과 자질 제약으로 설명하였다. 김종복(1988)에서는, 먼저 동사 어간과 동사토들이 결합된 동사형들을 (3)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동사형들을 각각의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동사형들과 다른 성분들과의 통어적 제약을 유형들의 결합 제약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의 동사형들은, 영어와 달리, 동사토들의 종류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동사형들의 유형의 수도 많고, 또 복잡할 수밖에 없다. 만일 각 동사토들의 통어적 기능을 기술하고, 형태론에서 그것들을 통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³⁾

3) (5)와 같은 분석을 받아들이면서, 동사토들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통사토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렵다.

3) 동사를 형태적 구조로 분석하는 또 다른, 그리고 좀더 간단한 방법은, ‘형판’을 가정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Yoon(1991)에서 우리말 동사의 형판을 (4)와 같이 나타내었다.

(4) V-root + (Pass/caus) + (Hon) + (Tense) + Mood⁴⁾

이러한 형판 (4)는, (5)와 같은 동사토의 엄격한 순서 제약에 대해서는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김종복(1988)에서 지적한 바대로, (6)과 같이 위치는 지켰지만 비문이 되는 이유는 설명할 수 없다.

(5) ㄱ. *잡-았-시-라

ㄴ. *잡-다-었

(6) ㄱ. 가-(*시)-(*었)-다

ㄴ. 기-(*시)-(*었)-라

이것은 (4)와 같은 형판이 너무 단순하여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족한 점을 두 가지이다. 하나는 동사토들 사이의 결합 제약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사토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사토들을 분포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여, 그들 각각에 통어적 특성을 명시하고, 결합 제약에 따라 그것들을 통합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뒤의 문제는 (어말어미를 제외한) 동사토들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그것들에 대응하는 $\emptyset$ 형태소를 설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사실 ‘-시-, -었-, -겠-, -더-’들은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나타났을 때와는 다른 통어 기능을 가지며, 다른 성분과의 통어적 제약 관계도 다르다.

이 글은 형태론적 구조를 설명하는 형판의 설명을 받아들이면서, 동사와 동사토의 결합 제약을 설명하기 위한 통어적·의미적 특성에 대한 것은 HPSG의 방법론으로 설명한다.

4) Yoon(1991: J-B Kim(1998) 재인용)

2 동사 형판과 동사토의 기능

1) 동사토는 엄격한 순서에 따라 교착적 방식으로 실현되는데, 그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비문이 된다. (1)은 ‘시’와 ‘었’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비문이 된 것이다.

(1) *가-었-시-다.

우리말 동사토를 ‘시, 었, 겠’과 ‘다, 라, 니, 기, 는,...’으로 한정한다면 실현 순서는 (2)와 같다.

(2) 가-시-었-겠-다

(2)로 한정하더라도 교착적 방식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동사 어간 + 동사토’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3) 먹다

(4) 먹었다, 먹었겠다, 먹었었다, 먹겠다, 먹겠지만, 먹겠군요, 먹었으니, 먹었고, 먹었지만, 먹지만, 먹었어도, 먹어라, 먹자, 먹어요, 먹으니, 먹었으니, 먹을까, 먹었구나, 먹겠구나,.....

(3)의 먹다만 보더라도 (4)에서 제시된 예 이상의 종류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V의 하위 유형이나 VFORM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동사토의 통어적·의미적 기능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동사토 각각을 분석하고 기호의 하위 유형인 *infl*로 설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가정하는 동사 형판의 모습을 살펴 보자. 줄기를 ‘0’의 위치라고 한다면, ‘-시-, -었-, -겠-, -다’의 순서로 나타난다. 그리고 앞에서 논의된 것

과 같이 이들은 나타나지 않아도 대립적인 기능을 가지므로 각각 $\emptyset$ 형태를 가정한다. 그래서 동사의 형판은 (5)와 같이 나타낸다.

(5)

0	I	II	III	IV
줄기	시, $\emptyset$	었, $\emptyset$	겠, $\emptyset$	다, 라, 니, 기, 는,...

(5)의 형판의 위치는 (6)과 같이 자질구조에서 ‘MOR’ 자질의 값으로 표시된다.

(6) [MOR *infl* : 1]

2) 이제 (5)의 동사토에 대해 살펴는데, 여기서 동사토 각각의 문법적 기능을 밝히는 것은 이 글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앞선 연구의 설명을 바탕으로 동사나 다른 동사토와의 통합 여부를 자질 구조로 설명한다.

■■ 시, $\emptyset$

동사 형판에서 줄기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시’이다. 그래서 ‘시’는 언어 기호의 유형으로는 *infl*(토)이며, 형판에서의 위치는 ‘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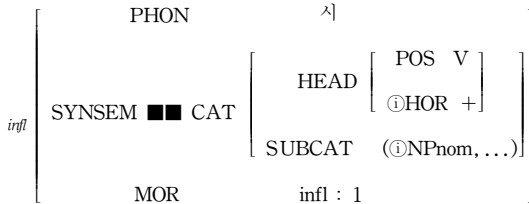
(1) 선생님께서 친절하**시**다.

그러면 이제 ‘시’의 통어적 기능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시’는 알려진 대로 ‘주어 높임’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닐 때 ‘시’가 나타나면 비문이 된다. (2)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비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어색하다.

(2) *학생은 친절하**시**다.

그래서 ‘시’의 통어 기능은 ‘주어 높임’이며, 이것을 자질로 ‘HOR’이라고 표시한다. 그러면 ‘시’의 자질구조는 (3)과 같다.

(3)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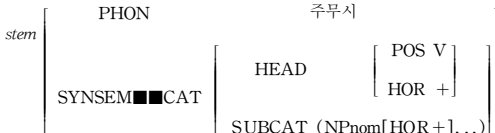


(3)은 ‘[HEAD | POS V]’ 자질과 값을 통해 동사와 통합할 수 있다. 그런데, ‘주무시다, 드시다’와 같은 동사의 경우에 ‘시’가 또 나타나면 (4)와 같이 비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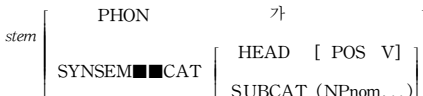
(4) 선생님께서 *주무시-시-었다.

이것은 ‘주무시다’의 통어 정보에 [HOR +] 값이 있기 때문에 ‘시’와 결합할 수 없는데, 이것은 동사의 어휘 규칙에 따른 것이다. ‘가다’의 자질구조와 비교하면 (5), (6)과 같다.

(5) 주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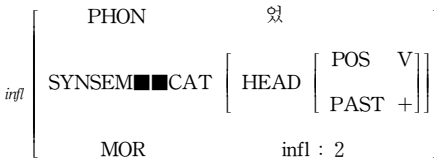
(6) 가-



■■ 었, ∅

형판에서 위치가 ‘: 2’인 ‘었’은 동사의 ‘과거(PAST)’ 자질에 대한 값과 관련된다.

(7) 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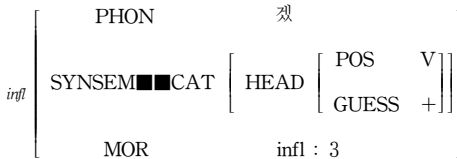
■■ 겠, ∅

‘겠’은 형판에서 위치가 ‘: 3’에 있는 동사토인데, ‘겠’을 시제로 분석하는 논의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8)과 같이 쓰이는 점을 고려해서 시제로 분석하지 않고 ‘GUESS’라는 자질로 분석한다.

(8) 먹-었-겠-다.

만약 ‘겠’이 소위 ‘미래 시제’라고 한다면 (8)과 같이 ‘과거 시제’의 ‘었’과 함께 실현될 수는 없기 때문에 ‘겠’은 ‘GUESS’ 자질로 분석해야 한다. ‘겠’의 자질 구조를 보이면 (9)와 같다.

(9) 겠



■■ 종결형 V 연결형 V 명사형 V 관형사형

맺음토는 동사 형판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여 모두 ‘MOR’ 자질의 값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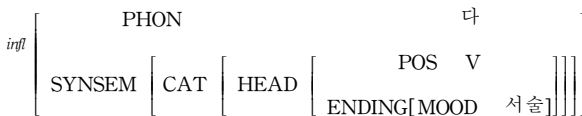
로 ‘infl : 4’를 가진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명사토는 올 수 있어도 다른 동사토는 올 수 없다.

여기서는 맺음토 중에서 종결형토(종결토)의 경우만 살핀다. 종결토도 다른 맺음토와 마찬가지로 동사 형판에서 ‘4’의 위치에 나타난다. 그리고 종결토는 다른 맺음토와 비교했을 때 종류가 가장 많다. 그런데 종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많지 않다. 종결토는 주로 말할이의 명제에 대한 태도 즉 서법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논자에 따라서 서법을 3가지 혹은 4가지, 5가지 등으로 구분한다. 이 글에서는 국어학 논의에서 보통 분류하고 있는 ‘서술, 물음, 시킴, 함께함’을 (10)의 종결토 ‘다, 니, 라, 자’ 등의 자질 MOOD의 값으로 한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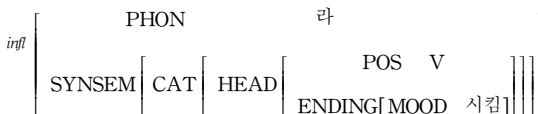
- (10) ㄱ. 영이가 학교에 갔다.
 ㄴ. 영이가 학교에 갔니?
 ㄷ. 학교에 가라.
 ㄹ. 학교에 가자.

예를 들어 ‘다’와 ‘라’를 보자.

(11) 다



(12)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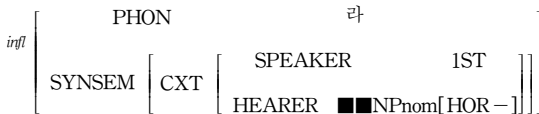
5) 여기서 ‘서법’의 의미와 종류를 밝히는 것은 이 글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여기서는 우리말 동사의 내부 구조를 보이기 위한 것이므로 허웅(1983)의 분류를 가져왔다.

그런데 (11), (12)와 같은 정보만으로는 (13)과 같은 경우를 설명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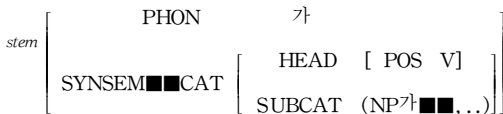
- (13) ㄱ. *가-었-어라
 ㄴ. *가-겠-어라

(13)이 비문이 되는 것은 동사토 ‘어라’가 시킴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라든가 추측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문법에서 좀더 명백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할 이는 1인칭이고 들을이는 동사 줄기의 하위범주화에서 주어와 같은 지시 대상을 가진다. 이것을 자질 구조로 나타내면 (14)와 같다.

(14)



(15)



그리고 (14)의 $\blacksquare\blacksquare$ 은 ‘시’의 제약과 맞지 않기 때문에 (16)이 비문이 된다.

- (16) *가-시-어라

이와 같은 논의에 따르면 ‘라’의 들을이 높임형인 ‘-하십시오’는 ‘시’와 결합할 수 있다.

그리고 (17)은 ‘었’과 결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17)

infl	PHON	라
	SYNSEM	CNT ■■ E-TIME ①
		CXT ■■ U-TIME ①

(17)에서 보면 사건시(E-TIME)와 발화시(U-TIME)이 ①로 표시된 것과 같이 [PAST -]이다. 그러므로 [PAST +]인 ‘엿’과 함께 쓰일 수 없다.

그 외 마침토인 ‘니’는 [MOOD 물음], ‘라’는 [MOOD 시킴], ‘자’는 [MOOD 함께함]의 값을 가진다.

‘마침토’는 다른 동사토보다 화용 정보가 많은데, 이것을 통해 [MOOD 서술]과 같은 값으로 구별되지 않는 ‘어, 어요’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18) 어

infl	PHON	어
	SYNSEM	CAT [HEAD [POS V]]]
		ENDING[MOOD 서술]
		CXT [DL -높임]

(19) 어요

infl	PHON	어요
	SYNSEM	CAT [HEAD [POS V]]]
		ENDING[MOOD 서술]
		CXT [DL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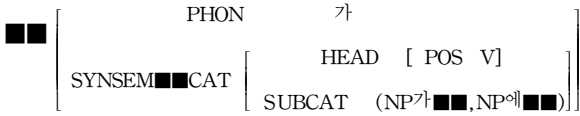
3. 동사의 정보와 문장

지금까지 살핀 동사의 정보를 (1)의 문장을 예로 들어 정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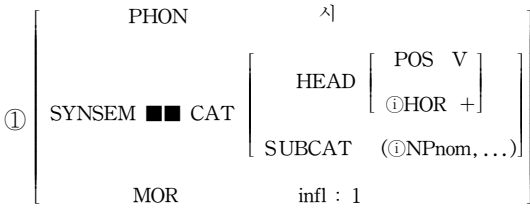
(1) 선생님께서 학교에 가시었겠다.

먼저 ‘가, 시, 었, 겠, 다’ 각각의 자질구조를 보이면 (2)~(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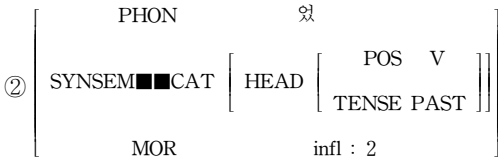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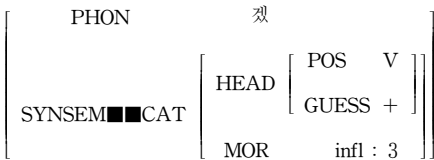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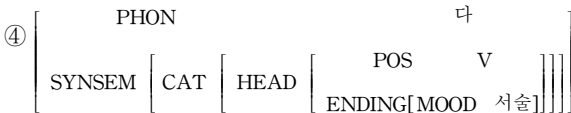
(4)



(5)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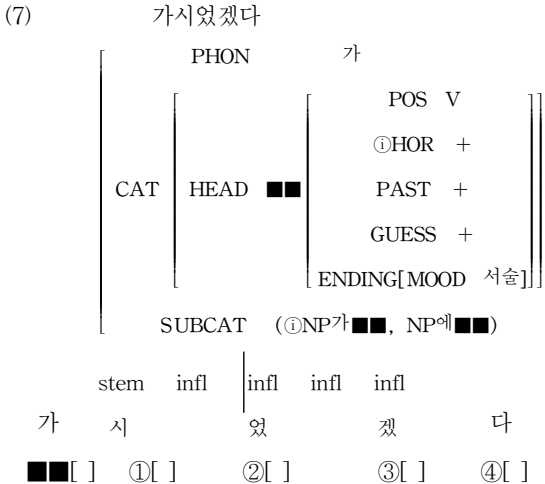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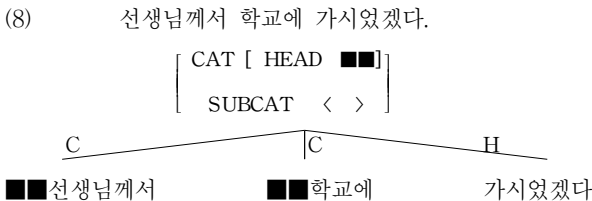


(2)~(6)은 (7)과 같이 형태론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각 형태론적 단위들

은 동사의 어휘규칙과 도식에 의해 ‘가시었겠다’를 이루고 각각의 통어 기능이 반영된다.



그리고 (8)에서 중심어는 ‘가시었겠다’인데, 중심어의 HEAD 자질이 중심어 자질 원리에 의해 될까지 투사되어 일이 ‘선생님께서 학교에 가셨다’의 HEAD 자질과 구조 공유하고 있는 것을 ■■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중심어의 하위범주화 자질을 ‘선생님께서’, ‘학교에’로 채워져 일에서는 SUBCAT값이 포화된 < > 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하위범주화 원리에 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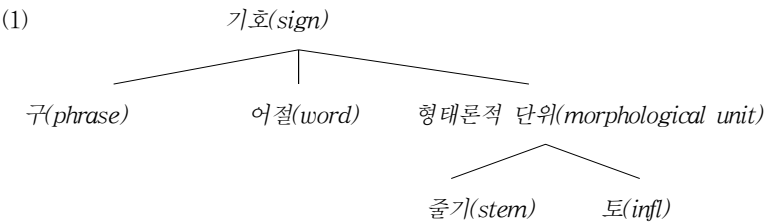


PHON		가	
CAT	HEAD	■■	POS V
			①HOR +
			TENSE PAST
			MODAL +
SUBCAT			MOOD 서법
			(①NP가■■, NP에■■)

IV. 맺음말

1. 지금까지 우리말 동사토의 형태적·통어적 제약 관계를 문법에 반영하기 위해 ‘동사토’가 실현되는 위치와 순서를 바탕으로 다른 성분과의 결합 관계나 제약을 검토하였다. 동사토의 위치와 순서와 같은 형태론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형판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동사토의 통어적 특성을 형태론에 반영하여 기술하기 위해서는 HPSG의 정보 처리 방법을 도입하는데, 우리말의 특성에 따라 언어 기호의 하위 유형과 도식과 어휘 규칙을 추가하였다.

2. ‘토’의 처리를 위해 먼저 기호(*sign*)의 하위 유형으로 *phrase*(구)와 *word*(어절) 이외에 ‘*morphological unit*(형태론적 단위)’라는 유형을 추가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형태론적 단위’는 다시 유형 ‘줄기’와 ‘토’로 나누었다. 그래서 이 글의 기호의 분류는 (1)과 같다.



3. 그리고 형태론적 단위(*morphological unit*)가 어절(*word*)을 이루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2)와 같은 동사의 어휘 규칙을 설정하고, (3), (4)의 ‘형판’과 통합 원리를 도입하였다. 동사 어간과 동사토들은 각 형판에서 주어진 동사토의 위치나 통어 기능의 값들이 충돌되지 않으면 어휘 규칙과 통합 원리에 따라 통합한다.

(2) $word [CAT | HEAD_{stem} [POS \ V]]$

$$\Rightarrow_{word} \left[\begin{array}{c|c|c} & & stem [POS \quad V] \\ \hline & & infl [HOR \quad +V-] \\ \hline & & infl [PAST \quad +V-] \\ \hline & & infl [GUESS \quad +V-] \\ \hline & & infl [ENDING \quad 종결형 \vee 연결형 \vee 명사형 \vee 관형사형] \end{array} \right]$$

(3) 동사의 형판

0	I	II	III	IV
줄기	시, $\emptyset$	었, $\emptyset$	겠, $\emptyset$	다, 라, 니, 기, 는,...

(4) 형태론의 통합 규약

줄기(*stem*)과 토(*infl*)는 형판에서 그 위치가 정해지고, 그 위치에서 다른 형태론적 단위와 정보의 충돌이 없으면 통합될 수 있다.

주제어 : 동사, 동사토, 형판, HPSG (verb, inflectional affix, HPSG, verbtemplate)

참고 문헌

김종복(2003), ‘제약기반이론에서의 한국어구구조문법과 LKB를 이용한 구문분

- 석기 구축,
박병수(1994),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 《현대 언어학 지금 어디로》(장석진 편), 한신문화사.
- 박승혁(1997), 《최소주의 문법론》, 한국문화사.
- 박효명(1998), 《핵어문법론 I》, 한국문화사.
-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부.
- 서태길(1997), '어휘정보에 기초한 국어 문법기능에 대한 연구,'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신수송·류수린(1995), 《어휘기능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 신효필(1994), '한국어 관계구문의 통사와 의미구조-통합문법적 접근-, ' 서울대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 양동휘(1989), 《지배-결속 이론의 기초》, 신아사.
- 양재형(1990), 'HPSG에 기반한 한국어 분석기의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유동식(1995), 《국어의 매개변인 문법》, 신구문화사.
- 이흥식(1998), '동명사 설정의 문제에 대하여,' 국어학 31, 국어학회.
- 이희자·이종희(1999), 《(사전식)텍스트분석적 국어 어미의 연구》, 한국문화사.
- 임흥빈(1987), 《국어의 재귀사 연구》, 신구문화사.
- 임흥빈(1999), '21세기 세종계획 국어 기초자료 구축,' pp305~472, 문화관광부.
- 장석진(1995), 《정보기반 한국어 문법》, 한신문화사.
- 주시경(1910), 《국어문법》, 역대문법대계 제1부 4책, 탑출판사.
- 최규수(2000), '자리토씨의 형태론과 통어론,' 우리말 연구 11, 우리말학회.
- 최규수(2001), '통어론과 형태론의 관계에 대하여,' 언어과학8-1, 한국언어과학회.
- 허웅(1983), 《국어학》, 샘 문화사.
- Chung Chan(1996), *A Lexical Approach to Word Order Variation in Korean*, Thaeaksa, 언어학 총서 30.
- Chung Chan & Kim Jong-Bok(2002), *Korean Copula Constructions*, 언어 27.2: 171~193, 한국언어학회.

- Chung Chan, Kim Jong-Bok, Byung-Soo Park, and Peter Sells(2001),
 ‘Mixed Categories and Multiple Inheritance Hierarchies in English
 and Korean Gerundive Phrase,’ *Language Research* 37.4 : 763~797.
- Ivan A. Sag & Thomas Wasow(1999), *Syntatic Theory*, CSLI.
- Kim Jong-Bok(1998), Interface between Morphology and Syntax : A
 Constraint-Based and Lexicalist Approach. *언어와 정보* 2 : 177~233.
- Pollard, Carl & Ivan A. Sag(1987), *Infomation-based Syntax and Semantics*,
 CSLI.
- Pollard, Carl & Ivan A. Sag(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SLI.

※ 이 논문은 2003년 10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3년 11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3년 11월 29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